

우크라 둘러싸고 서방 vs 러시아 무력과시 '맞붙'

나토 지휘로 미 함모 지중해 훈련 참가...“냉전 종식후 첫 사례” 러, 육해공군 총동원 대규모 무력시위...중국과 합동훈련 진행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서방과 러시아가 유럽 안팎에서 잇따라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중해에서 진행 중인 '넵툰 스트라이크 22' 훈련에 자국 항공모함 해리 S. 트루먼 호를 중심으로 한 함모전단을 참가시켰다.

제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당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이 "나토가 가진 최고 수준의 해상 타격 능력을 선보이도록 기획됐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 항공모함이 나토 지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훈련은 북대서양 연합의 통일성과 능력, 힘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상 기동과 반(反)잠수함 전술, 장거리 타격 훈련 등으로 구성된 이번 훈련은 약 2년 전부터 기획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과 관련한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밀접한 지중해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회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훈련인 만큼 러시아 입장에선 무력 시위로 받아들일 소지가 크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훈련을 연기하

는 방안이 한때 고려됐지만, 결국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해당 병력은 필요시 나토 신속대응군(NRF)에 편제돼 동유럽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시에는 통상 10일의 준비기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부 병력의 준비기간이 5일로 단축됐다.

미국은 이에 더해 최근 2억 달러(2400억원) 규모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승인하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대전차 미사일 등 군사원조 물자를 전달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직접 파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강력한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불분명하고 통선은 해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서방이 꾸며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남서부와 서부 지역 부대들에 실탄을 동원한 훈련을 개시할 것을 지시했다. 남부군관구에서는 6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흑해함대에 속한 수호이(Su)-27SM과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야로슬라블에 전술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차량이 훈련을 위해 주처돼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고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예고하는 등 침공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제재 가능성도 거론했다. /연합뉴스

Su-30SM2 전투기, Su-34 전폭기 등으로 이뤄진 비행대도 훈련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군관구 소속 부대들도 1000명 이상의 병력과 군사장비를 동원해 오는 29일까지 훈련을 벌인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동맹국 벨라루스와 내달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병력과 무기를 벨라루스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내달까지 지중해, 북해, 오호츠크해, 대서양 북동부, 태평양 등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할

예정이다. 해당 훈련에는 140척 이상의 함정과 지원함 등이 참가한다. 특히 러시아 해군은 아일랜드 남서부 해안에서 240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할 계획이다.

해당 해역은 공해상이지만 아일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당하는 까닭에 일각에선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시위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주요 우방인 중국과도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리처드 기어 불키스 받은 인도 여배우 15년만에 외설 혐의 벗어

공개 석상에서 할리우드 스타 리처드 기어로부터 '불키스'를 받았다가 기소된 인도 유명 여배우가 15년 만에 외설 혐의에서 벗어났다.

2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 법원은 최근 발리우드 여배우 실파 셰티에 대한 외설 혐의 관련 판결에서 셰티는 기어의 행동으로 인한 희생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셰티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관련 기소를 기각했다.

기어는 2007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에이즈 예방 행사에서 셰티의 상반신을 뒤로 쫓으며 끌어안고 불에 키스했다. 그러자 공공 장소의 키스가 금지되던 인도에서는 음란성 논란이 촉발됐다.

인도 각지에서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특히 힌두교 단체들은 기어가 인도를 모욕했다며 비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 사람의 인형과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까지 벌어졌다. 라자스탄주 지방법원은 외설 혐의로 기어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

이에 기어는 당시 "내가 출연한 영화 '셀 위 덴스'의 한 장면을 따라 한 것일 뿐"이라며 "그 행동은 내가 인도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기어에 대한 체포 영장은 대법원에 의해 보류됐지만 셰티에 대한 기소건은 법원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유지됐다. /연합뉴스

탈레반-서방, 회담 마무리 인도적 지원·인권 등 논의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재집권 이후 가진 서방과의 첫 접촉이 3일간의 노르웨이 방문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슬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문제는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26일(현지시간) 탈레반 대표단은 이번 방문의 마지막 날인 전날 토머스 니콜라슨 유럽연합(EU) 아프간 특사,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등과 차례로 회담했다.

헨리크 투네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회담에 앞서 현지 매체 NTB에 향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는 아프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 여성과 소수자 등 인권 존중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NTB는 전했다.

탈레반은 노르웨이 외무부의 초청으로 지난 23일 오슬로에 도착했다. 탈레반이 지난해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래 서방 국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레반은 첫날 아프간 여성 운동가, 언론인 등과 만난 데 이어 24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관리들과 비공개로 만나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 상황과 지원 문제, 포용적 정부 구성, 교육·취업 등 여성 인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유럽, 자영업자 반발에 속속 방역완화

네덜란드·덴마크 제한조치 해제 방역 유지 독일선 반대시위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연일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속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나라 중 한 곳인 네덜란드는 2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식당과 술집, 박물관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네덜란드가 여러분들을 그리워했다. 오늘 우리는 네덜란드의 봉쇄를 추가로 푸는 큰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봉쇄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네덜란드 카페와 술집, 식당은 밤 10시까지 이용객 수에 제한을 둔 채 영업을 가능해진다.

극장과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 시설과 축구 경기장 등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나이트클럽은 봉쇄 완화 조치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작년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

터 술집, 식당, 상업시설 등 비필수 영업장의 문을 모두 닫는 전면 봉쇄에 들어갔던 네덜란드는 폭다운에 따른 사회 각계의 불만이 커지자 앞서 지난 15일부터 상점과 체육관, 미용실, 스포츠클럽 등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6만5000명으로 치솟는 등 오미크론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동안 네덜란드의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2000명에 달한다.

덴마크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모든 제한 조치 해제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완화하며 방역 체계의 전제를 '코로나19와 공존'으로 전환하고 있다.

영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끝내기 하는 한편, 일선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무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방역 고삐를 풀지 않고 있는 독일에선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강추위에 얼어붙은 나이아가라 폭포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쪽에서 바라본 나이아가라 폭포의 일부가 얼어붙어 있다. 캐나다와 미국 북부 지역에는 영하 10~20℃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